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4월 14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27장 38절-44절

설교제목 :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지난 4월 11일 낙태죄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의 주요 논거가 **여성의 인권과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권리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태아의 인권은 짓밟혀도 됩니까?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산모가 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낙태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순간 태아의 인권은 짓밟힐 뿐만 아니라,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면, 태아의 자기결정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일 태아에게 자기결정권이 주어진다면, 강력하게 자기의 권리를 외칠 것입니다. 서슴없이 또 다른 생명체인 태아를 내 맘대로 제거하겠다는 건 지나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이며,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반인권적인 잔인한 범죄일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역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속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고, 생명을 모든 가치에 중심에 두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표류한지 14일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사공들은 자신들의 배가 육지에 가까웠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이 밝게 되면, 물으로 상륙작전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유에 따라 사람들은 비상식량이었던 밀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이들은 배를 가볍게 하여 해안에 대기 용이하도록 나머지 밀을 모조리 바닷 속으로 버리게 됩니다.(38절) 드디어 날이 새자, 정말 그들의 배가 어떤 섬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39절)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한 이들은 모래포구에 배를 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고물에서 내린 네 개의 닻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키줄을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을 맞추어 해안으로 들어갔습니다.(40절)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즉 섬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에 형성된 벌에 배의 이물이 박혀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물은 세찬 파도로 인해 파손되기 시작하였습니다.(41절) 배가 벌에 박혀 꼼짝할 수 없고, 파도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자, 배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틈을 파서, 죄수들이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42절) 그 이유는 당시 로마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군인이 자신이 관할하던 죄수를 잃었을 경우에는,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군인이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죄수들을 죽이고자 하는 판단은 그들의 편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은 타당한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 만일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군인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결과에 대하여 자신들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인을 저지른 꼴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도망쳐봤자 섬입니다.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군사들의 결정의 근간에는 자신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이기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낙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진정 태아를 위하는 낙태 비율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간에는 대부분이 지독한 자기 이기심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술의 책임자인 백부장의 승인만 떨어지면, 다른 죄수와 더불어 바울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 울리오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군사들의 뜻을 막았습니다.(43절) 그런데 43절에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에서 ‘~하려 하여’로 번역된 ‘블로메노스’는 ‘신중히 의도하다’, ‘바라다’는 ‘블로마이’의 현재분사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주로 ‘사도의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그의 주권적인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는 울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는 것이 울리오가 바울에 대한 호의 때문이거나, 바울이 지닌 인품과 신앙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역사로 인해 울리오의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방해하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육지에 나가고, 남은 자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물으로 나왔습니다.(44절) 그런데 44절에서 ‘구조되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노테나이’는 ‘디아소조’의 부정사로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벧전3:20**에서 노아홍수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인데, 이것은 276명의 영혼들이 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셨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나눔은 파멸되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은 파선되었습니다. 파선된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정녕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생명권을 권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붙들시다. 십자가를 더욱 붙들므로 반생명주의적인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갑시다.

※.말씀 살펴보기

- 1) 군인들이 배안의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울리오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인들의 뜻을 막아셨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구원하려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낙태를 찬성하는 반생명주의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친생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친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